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⑮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治肅愼忽. 高矢氏之後, 封于南東之地, 山河秀麗, 草木暢茂, 曰靑丘國, 宅樂浪忽. 封[周](周)朱因氏之後, 於蓋馬國. 余守己爲(穢)[濊]君. 夫蘇 夫虞及少子夫餘, 皆封于國西之地, 句麗 眞番 夫餘諸國, 是也. 其後, 夫婁又封東來三人於各地, 後世之沃沮 卒本 沸流之稱, 皆起於其所封國名也. 通檀氏之世, 凡大國九, 小國十二, 分治天下諸州, 今不可詳矣.

당시에 단군의 교화는 사방에 두루 미쳐 북으로는 대황에 다다르고 서쪽은 설유를 거느리며, 남쪽으로 회대의 땅에 이르고 동으로는 큰 바다에 닿으니, 가르침이 퍼져 나가 물들어 감은 위대하고도 넓은 것이었다. 이에 천하의 땅을 구분하여 나누고 공훈이 있는 친족에게 주어 제후로 삼았다. 치우씨의 후손에게는 남서쪽의 땅에 봉하니, 거대하고 광활한 들녘에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푸르기에 남국(藍國)이라 이름하고 엄려홀(奄慮忽)에 자리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신지씨의 후손에게는 북동쪽의 땅에 봉하니, 물길이 수려하고 산악이 장엄하며 바람의 기운은 굳세고 웅장하기에 속진국(　　國) 또는 숙신(肅愼)이라 일컬었으니, 방언으로 호걸 장엄함을 말하며, 숙신홀(肅愼忽)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고시씨의 후손에게는 남동쪽의 땅에 봉하니, 산하가 빼어나게 수려하며 초목이 무성하여 청구국(靑丘國)이라 이름하고 낙랑홀(樂浪忽)에 자리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주인씨의 후손은 개마국(蓋馬國)에 봉하고, 여수기는 예(濊)의 임금이 되게 하였으며, 부소와 부우 및 작은 아들인 부여는 모두 나라의 서쪽 땅에 봉하니, 구려(句麗)와 진번(眞番) 및 부여(夫餘) 등의 여러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그 후에 부루가 또 동쪽에서 온 세 사람을 각지에 봉했는데, 후세의 옥저(沃沮)와 졸본(卒本) 및 비류(沸流) 등의 명칭은 모두 이 봉함을 받은 나라의 이름에서 생겨났다. 단씨(檀氏)의 시대를 통하여 무릇 큰 나라는 아홉이요 작은 나라는 열둘로서, 나누어 천하의 모든 고을을 다스렸는데 지금은 상세하지 않다.

蚩尤氏旣受封於藍國, 乃紹先祖之志, 撫民安業, 講習戎事, 恒爲西南藩蔽. 且其民, 數遷(徒)[徙]海岱之地, 以致後世, 恒與漢土諸國, 互相角逐. 神誌氏受封於　　國, 地旣沮寒, 不宜五穀, 土廣人稀, 牧畜頗適, 乃使民帶弓佩劒, 并事遊獵. 後世, 其民漸徙黑水之地, 遂以漁獵爲生, 艱險儉嗇, 健勁悍. 雖强勇遠出於諸國, 漸至不習文事. 後世, 漢曰　婁, 元魏曰勿吉, 隋.唐曰靺鞨, 稍與窮北蠻人相混, 漸失其俗, 頗有陵夷之歎. 近古, 金 女眞等, 皆其後身, 同族異稱也. 高矢氏就靑丘國, 觀山川, 相土地, 開田野, 興農桑. 風氣溫[　]美, 五穀豊肥. 民皆, 衣輕(暖)[煖]而食肥(　)[　]美, 頗有冠帶衣履天下之槪, 文武亦得以并興. 夫食足貨通然後, 國實民富而敎化成. 故《管子》曰: [倉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若使民, 終歲　　以絲粟爲慮, 則復奚暇言禮義哉! 雖然, 天覆地載, 區隅各殊, 於是氣有寒溫, 土有肥瘠, 其如天澤地利之不齊, 何是, 三家者之守國敎民之道, 所以各異, 而其果應亦自不同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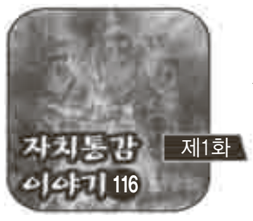
치우씨는 남국에 봉함을 받고서 선조의 뜻을 이어 백성들을 위무하고 생업을 편케하며 군사의 일을 배워서 익히니, 항상 서남방으로 울타리가 되었다. 또한 그 백성들을 수차례 해대(海岱)의 땅으로 옮겨가게 하니, 후세에 이르러 항시 한나라 땅의 뭇 나라들과 더불어 서로 각축하게 되었다. 신지씨는 속진국에 봉함을 받으니, 땅의 기후는 모질게 한랭하여 오곡에 마땅하지 않았으나 넓은 지역에 사람이 드물어 목축이 매우 적합하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활을 매고 검을 차고 유목과 수렵에 함께 종사하게 하였다.

후세에 그 백성들은 점차 흑수(黑水)의 땅으로 옮겨가 마침내 어로와 수렵으로 생업을 삼으며 고생하면서도 검약하니 건장하고도 억세어 졌다. 비록 용감하게 멀리 여러 나라로 나아갔으나 점차 글은 익히지 않게 되었는데, 후세에 한(漢)나라는 읍루(　婁)라고 일컬었고, 원위(元魏) 때는 물길(勿吉)이라 하였으며, 수와 당나라는 말갈(靺鞨)이라 불렀으며, 점차 북쪽 끝의 야만인들과 서로 섞이더니 점차로 그 풍속을 잃어버리고 한탄스럽게도 자못 쇠미해져 갔다. 가까이는 금나라와 여진 등이 모두 그 후손으로 같은 족속을 달리 일컬은 것이다.

고시씨는 청구국으로 나아가 산천을 둘러보고 토지의 형세를 관찰하고 밭과 들녘을 개간하여 농업과 잠업을 일으켰다. 바람의 기운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오곡은 풍성하게 살찌니 백성들은 모두 가볍고도 따뜻한 옷을 입고 기름지고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되었으며, 모자를 쓰고 띠를 두르며 옷을 갖춰 입고 신을 차려 신는 등 자못 천하의 풍채가 있었기에 문무(文武)가 아울러 일어나게 되었다. 무릇 음식이 풍족하고 물자의 유통이 원활한 연후에야 나라가 견실해지고 백성이 부귀해지며 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관자(管子)》에서 이르기를 [곳간이 가득하고 서야 예절을 알 수 있으며,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하고 서야 영광됨과 수치스러움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평생을 곁눈 짓이나 하며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게 한다면 곧 누가 다시 한가롭게 예의며 의리를 말하려 들겠는가. 비록 다 같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으나 거처하는 구석은 각기 다르기에 기후는 찬 곳과 따뜻한 곳이 있고 토양은 비옥한 곳과 척박한 곳이 있으니, 마치 하늘의 혜택과 땅의 이로움이 고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를 어찌하겠는가! 세 집안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가르치는 도리가 그러한 까닭으로 각기 다르기에 그 결과 또한 응당 같지 않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의 운명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동진의 황실은 이미 그 힘을 잃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왕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주인공은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유유(劉裕)였다. 그러나 유유가 태위가 되어 별안간 권력을 잡아 가자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유의(劉毅)였다. 고래싸움이 시작 된 것이다.

사실 유의는 환현이 반란을 일으키고 초(楚)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 유유 등과 더불어 동진의 환현을 토벌하여 동진 왕조의 위기를 구했던 공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순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를 토벌하는 싸움에 참여하였으므로 동진에서는 유유에 못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동의 적이 물러 간 자리에서는 전에 우리 편이었던 사람끼리 자웅을 겨루게 되는 것이 세상사다. 결과적으로 유유는 태위가 되어 권력을 잡았지만 유의는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의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유유에 비하여 자못 문장도 좀 알았으니, 유유보다 나은 자기가 자기보다 못한 유유 밑에 있는 것에 속으로 불만하면서 언젠가는 유유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유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 그저 임시로 그에게 복종하는 우선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유의는 유유에게 복종하는 척하면서 유유에게 장강의 상류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을 요구하였다. 장강의 상류지역을 다스리게 되면 언제든지 장강에 배를 띄워 물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유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유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었다. 유의는 유유를 포위하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남부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관직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유유는 선선히 그 요구를 들어 주었다. 유의는 눈에 띄게 서부와 남부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유유를 옥조이는 조치를 해 나갔지만 유유는 여전히 유의의 요구를 들어 준 것이었다.

이렇게 속에서 유의는 본격적으로 자기 기반을 다지는 조치를 취하였다. 유의가 자기의 근거지인 강릉에 들어오자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군수 등 지방관을 자기편 사람으로 모두 바꾸었다. 또 유의가 병이 나자 자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자기의 사촌동생 연주(兗州, 강소성 양주시) 자사 유번(劉藩)으로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유유는 여전히 유의의 이 요구마저 들어 주었다.

겉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유의에 비하여 유의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속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유유의 대결 방식이다. 마치 두 마리의 고래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은인자중한 유의가 이길 것인지 매사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며 준비를 해 나가는 유의가 승리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질 때에는 그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새우들이다. 아무런 힘없는 새우가 잘 못 줄을 섰다가는 어느 때, 누구에게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번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당장 유의의 제2인자가 된 것만 좋아했는지 모를 일이다. 또 유번 때문에 그의 친구 사혼(謝混)도 끌려 들어갔다. 사혼은 전진 부견의 남침을 막은 동진의 재상 사안(謝安)의 손자였지만 자기가 새우라는 것을 몰랐다. 그저 겉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유의의 사촌동생 유번과 가깝게 지내면서 떡고물이라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사혼의 사촌형 사담(謝瞻)은 보잘 것 없는 처지에 권력 싸움에 끼어 있는 유번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사혼은 오히려 권력 있는 유번과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사담과 멀리하였다. 그런데 때는 다가 왔다. 은인자중하던 유유가 칼을 빼들었다. 먼저 태위인 유유는 유번에게 조정으로 들어오게 하고 잡았다. 유의가 유번, 사혼을 데리고 반란을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조그만 이익을 보려고 유의에게 붙었다가 잡혀 죽은 것이다. 권력의 속성을 모르면 권력의 근처에도 가서 안 되는 것이 새우의 처신이 아닐지?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혁승상임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건(안동)	20만원
△권병선(서울)	20만원
△권정식(안동)	20만원
소 계	60만원

▣ 대의원회비

△권병후(수원)	10만원
△권기갑(이천)	10만원
△권오정(예천)	10만원
△권덕상(대전)	10만원
△권도현(마산)	10만원
△권오길(김천)	10만원
소 계	60만원
합 계	220만원

■ 역사기행

운양호(雲楊號) 사건(事件)과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강화도는 경기도 한강입구에 위치한 섬이다. 현재는 강화군의 주된 섬이며 33개의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3국시대에 군(郡) 부(府)로 승격하였고 고려 때에 몽고군이 침입하였을 때에는 8만대장경과 상감청자를 완성하였고 조선조때에는 개국과 관련하여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역사적인 사실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등에 있어서 운향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체결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운향호 사건은 1875년(고종12년) 8월 일본군함 운양호와 강화도 포대 간에 일어난 포격 사건이다. 혹은 이 사건을 강화도 사건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의 전조는 대원군이 청국으로부터 귀환하자 일본은 조선의 문호개방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대원군 일파가 세력을 회복하기 전에 조선에서의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고 일본 정부는 모리야마(森山茂)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조선 서해 연안에 파견하여 주도면밀하게 조선의 동태를 파악하게 이르렀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1875년(고종12년) 8월 2일 강화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난지도 부근에 운양호를 정박시키고 식수를 구한다는 이유로 수병(水兵)을 보트에 태워 연안수심 측정과 탐색을 하면서 강화도 초지진(草芝鎭)까지 오다가 초지진 조선수병은 포대에서 총포격을 가하였다.

일본은 운양호 수병을 철수시키면서 함포로 초지진을 폭파하였다. 이어서 지금의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진까지 포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전대(陸戰隊)까지 상륙시켜서 약탈과 살인방화까지 자행하였다.

당시 조선의 영종진의 수병은 500여 명이 방어하고 있었으나 그곳 수미대장 첨사(僉使) 이민덕(李敏德)이 지휘하였으나 수미병사는 대부분이 도망가고 전사자 35명 포로 16명 대포 36문 화승총 130정 탄약 등을 약탈당하였다. 반면 일본측은 사망자는 없었고 경상자 2명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로 조선과 일본간의 한일 수호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을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이는 국제법상 맺은 근대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운양호 사건의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1876년(고종13년)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라는 명분을 세웠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구로다(黑田淸隆) 전권대사와 이노우에(井上馨) 부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은 신헌(申櫶)을 접견대관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에서 3차에 걸쳐 회담을 하였는데 결력의 고배를 몇번 넘겼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교섭이 잘 진전되지 않으면 전투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함선 8척을 임항하였고 육군을 중타할 것을 본국에 요청하는 한편 조선에서는 대원군 세력 일파의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청(淸)의 이홍장의 권고와 박규수(朴珪壽) 오강석(吳康錫)의 주장으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고 개국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그 주요한 상황은 (1)대세가 개국을 하여야 할 시대이고 (2)일본의 무력시위가 강력하였으며 (3)쇄국정책은 민씨 일파의 세력을 밀어냈고 대원군의 득세를 가져올 것이고 (4)청(淸)이 개국을 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일수호조약은 1876년(고종13년) 2월 26일에 조인되었다.

조약조문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약조문은 12조로 되어 있고 (1)조선은 자주지방으로서 일본과 동등권을 가진다 (2)20개월 이내에 부산항 이외에 3개항을 열고 일본상인의 거주와 무역의 편의제공한다 (3)일본은 조선의 연해도서 암초등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한다 (4)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의 범죄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조선은 자주지방임을 규정하여 청(淸)의 속국이 아님을 증명하고 일본은 청(淸)의 정치적인 우월성을 부정하는 명확한 명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조선침략의 발판을 보다 쉽게 얻게 되었고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최초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 문호개방을 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미국 등 다른 국가와도 통상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국 페리 제독이 군함을 몰고 와서 위협하여 조약을 체결한 방법을 조선에 대하여 그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서양의 세력이 해양구가인 일본 땅에 접하기가 용이한 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반도적인 지형과 청(淸)의 육로로 서양의 문물이 늦게 접하게 되고 서양인들의 해로(海路)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자체가 선진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해양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볼 수 있다.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 김 영 헌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전라도를 중심으로 광주목사 권율을 조명한다

조선 조정은 일본 침략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4월 17일 아침에야 경상좌수사 박홍朴泓과 경상우병사 김성일의 장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

박홍의 장계에는 "높은 데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붉은 깃발이 성에가득 차 부산이 함락된 것을 알았습니다."고 하였고, 김성일은 "적의 배가 4백 척이 되지 않고 한 배에 실은 사람이 수십 명에 지나지 아니하니모두 합해야 1만이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했다. 『재조번방지』

당시 전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장계였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단순한 국지전局地戰이 아님을 알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4월 17일, 곧바로 임금과 비변사 대신들이 모여 대응조치를 단행했다. 이일李鎰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조령·충주 방면)를 방어케 하고, 성응길咸應吉을 경상좌방어사로 임명하여 좌로(죽령·충주 방면)의 방어를 담당케 했다. 또한 조경越儆을 경상우방어사로 삼아 서로(추풍령·청주·죽산 방면)를 감당케 하고, 유극량劉克良과 변기邊璣를 조방장으로삼아 각각 죽령과 조령을 지키게 하였으며, 전강계부사 변응성逸應星을 경주부윤으로 임명하여 각자 군관을 모아 임지로 떠나도록 조치했다. 『연려실기술』

그리고 곽영郭嶸을 전라 방어사로, 이유의李由義·김종례金宗禮·이지시李之時를 전라 중좌우 조 방장으로, 이옥李沃을 충청 방어사로 삼아 왜적의 침략에 대비토록 했다.

『난중잡론』 이어 신립申砬을 삼도순변사로 임명하고, 이일의 뒤를 따라 중로로 내려가 왜적을 저지하도록 했다.

4월 19일, 류성룡을 도체찰사로 삼고, 김응남을 부사로 삼아 모든 장수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 무렵 권율을 광주목사로 전격 임명한 것으로보인다.

권율의 광주목사 임명날짜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노李魯가 쓴 『용사일기龍蛇日記』「김학봉(성일)의 사적편」 중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목사 권율과 진안현감 정식鄭湜은 이광이 빨리 근왕하지 않음에 분격하여 서로 약속하고 죽이려다가 공의 말을 듣고 그제야 중지하였다. 牧使權慄 鎭安縣監鄭湜 憤李洸不卽勤王 相約誅之 聞公言及止"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4월 26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권율이 광주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750리로, 도보로 7일 반에서 8일이 걸리는 것과, 전주관찰부 방문인사, 전임 목사와의 인수인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4월 20일 경에 광주목사에 임명된 듯하다.

권율의 광주목사 임명은 1587년 전라도 도사를 역임한 경력과 류성룡·윤두수 등 대신들의 천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임금을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도승지(현 대통령실장)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인것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

무엇보다도 곡창지대인 전라도를보전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연려실기술』을 보면, 권율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나자, 이항복이 발하기를,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하자, 권율은 "국가의 일이 급하니 이때야말로 신하로서 죽음을 바쳐야 할 때이다. 어찌 감히 잠시 동안인들 지체하여 아녀자의 슬피 우는 꼴을 볼 것인가."라고 했다.

전쟁터로 나가는 권율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있는 대목이다.

권율을 조카 승경升慶과 노비와 함께 도성을 출발하여 송파松坡나루에서 한강을 건너여주를 거쳐 가장 빠른 길을 통해 남으로 남으로 내려갔다.

평소라면 도보로 전주까지 6~7일 정도 걸리지만 발걸음을 재촉해 그보다 빠른 25일 쯤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로 내려오는 동안 권율은 왜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광주의 유력인사인 고경명과 박광옥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광주사람과어떻게 동화하고, 군사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전주에 도착한 권율은 전주성에 들러 전라감사에 부임 신고를 한 뒤, 부임지인 광주읍성에 도착하여 전 목사 정윤우와 인계인수를 함으로써 '광주사람'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한편 왜군은 4월 25일 상주를 삼키고, 4월 26일 문경을 점령한 뒤 4월 28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조정이 그토록 믿었던 신립이 이끄는 아군마저 궤멸시키고 말았다.

광주는 호남정맥 중간 지점 무등산 1187m 아래에 위치해 있다. 940년(고려 태조23) 무주에서 광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면적은 인접 시군과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광주목의 인구는 3~4만으로 여겨진다. (다음호에 계속)